

# 대구주보

가정, 가장 가까운 교회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연중 제22주일 2016.8.28.(다해) 제2014호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_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남산동) (053)250-3048~9 \_ <http://www.daegu.jubo.or.kr>



청도성당 감실 (사진 : 대구대교구 가톨릭사진가회)

## † 오늘의 전례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루카 14,11)

주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과 죄인들을 새 계약의 잔치로 부르십니다. 잔치에 초대받으면 윗자리를 고르지 말고 끝자리에 앉고, 잔치를 베풀 때는 보답을 받을 수 없는 이를 초대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명심합니다. 그리고 보잘 것 없는 사람들과 고통받는 사람들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공경하고, 주님의 밥상에 앉는 우리가 모두 한 형제임을 깨달읍시다.

**제1독서** 집회 3,17-18,20,28-29 **제2독서** 히브 12,18-19,22-24 **복음** 루카 14,17-14.

**입당송** 당신께 온종일 부르짖사오니,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자애가 넘치시나이다.

**화답송** ◎ 하느님, 당신은 가련한 이를 위하여 은혜로이 집을 마련하셨나이다.

**영성체송** 주님,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위해 간직하신 그 선하심, 얼마나 크시옵니까!



살겠습니다 금주의 실천 사항(평신도위원회 제공)

“이웃을 만나면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 천사들의 축제에 초대받는 법

김봉진 안드레아 신부 | 성건본당 주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지혜에서 나온 처세술이 있습니다. 이런 처세술은 전해지는 격언을 되새기고,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는 데서 얻어 집니다. 경주에는 300년 동안 12대를 이어온 부잣집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안의 부를 지키는 가훈이 전해지는데 참 흥미롭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면,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권력을 얻으려다 화를 입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곡식을 일만 석 이상 모으지 말고 남는 것은 사회에 환원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주변 사방 백 리에 굶주리는 사람이 없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부를 나눔으로 좋은 평판을 얻을 뿐 아니라 부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흥년에는 토지를 사들이지 않음으로써 원성을 받지 않게 했습니다. 사랑방에는 나그네들을 후하게 받아들이고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덕분에 그들에게서 방방곡곡의 세상물정에 대한 정보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경주 부자는 독립자금을 대고, 광복 후에는 토지개혁을 겪고, 전 재산을 교육 사업에 기증하기까지 후대 사람들에게 부자의 지혜를 전해주었습니다.

안식일 날 바리사이의 초대를 받은 밥상머리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초대받은 이들은 각자의 처지에 맞는 자리가 있습니다. 윗 자리를 탐내려다 자리를 내어주는 것보다 끝자리에 있다가 윗자리로 불러 올라가는 것이 더 나은 처신입니다. 율법학자라면 그런 지혜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겸손한 이는 사람들의 사랑과 하나님의 총애를 받습니다. 그러나 거만한 자의 재난은 약이 없습니다. 교만의 죄악

이 마음에 뿌리내렸기 때문입니다. 겸손과 자선은 현세에서의 처세술만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위한 가르침입니다. 하늘나라는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어린이와 같이 낮추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도 않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입니다. 겸손함은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통합니다.

요즘의 식사 접대는 상업적이거나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초대에 보답할 수 없는 이들을 청하라고 하십니다. 초대하는 사람은 보답을 바라지 않는 사심 없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가난한 이들, 장애우들, 다리 저는 이들, 눈먼 이들에 대한 초대는 그들이 갚지 못할 지라도 그들을 돌보시는 하느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지혜의 책인 탈무드에는 베푼 돈은 반드시 돌아온다고 가르칠 뿐 아니라 사후에까지 동행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호는 '하느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야고 2,13 참조)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늘나라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에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낮은 이들과 하느님의 의를 실천하는 이들을 당신의 식탁에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겸손과 자선을 실천하는 사람은 살다가 현세에서 값도 받겠지만, 무엇보다도 큰 행복은 하느님이 마련하신 잔치에 초대받는 행복을 맛보는 것입니다. **필문**

2016년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담화문(요약)

## 피조물 보호는 신앙인의 핵심 과제입니다

2015년 6월 18일 프란치스코 교종께서는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한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반포하셨습니다. 이 회칙은 그동안 교회가 정의와 평화의 관점에서 가르쳐온 사회교리를 환경문제로까지 확대시키면서, 피조물 보호가 신앙생활의 핵심 과제를 선포하신 기념비적인 문헌입니다(217항). 이어서 교종께서는 전 세계의 모든 신자들이 생태적 회개를 하고 피조물 보호를 위해 헌신할 것을 요청하시면서, 9월 1일을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로 제정하셨습니다. 올해부터 우리 한국 천주교회도 프란치스코 교종의 뜻을 따라 매년 이날을 특별히 피조물 보호를 위해 기도하는 날로 거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교회에서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을 거행한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환경문제가 더 이상 부차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는 의미입니다. 환경보호가 신앙의 핵심 과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우리가 바치는 기도와 전례행위 안에 더욱 뚜렷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프란치스코 교종께서 제정하신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은 피조물 보호가 신앙의 핵심 과제로 자리 잡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종께서는 회칙 「찬미받으소서」에서 현재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태계 파괴 현상을 개괄한 다음에, 생태계 파괴의 원

인과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난한 이들의 고통과 지구의 고통이 동일한 근원에서 비롯된 고통임을 직시하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가난한 이웃과 피조물을 우리의 형제자매로 여기고 겸손하게 살면서 기쁨을 누리는 복음적 생활방식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교종께서는 이 기도의 날을 ‘한 시간 성체조배’의 방식으로 거행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성체 앞에서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형제자매인 피조물들을 무심히 파괴한 것에 대하여 회개하고, 피조물 보호를 위해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킬 것을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도 안에서, 우리의 고통 받는 형제자매인 피조물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지치지 않는 실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모범적으로 사신 분은 생태주의자들의 주보성인이신 성 프란치스코입니다. 올해부터 거행되는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피조물 보호가 우리 신앙인들의 핵심 과제라는 것을 깨닫고 환경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6년 9월 1일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장 강우일 주교

## 봉성체와 막걸리

김명현 디모테오 신부 | 비산본당 주임

제게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소중한 분들이 있습니다. 함께 만나 맛있는 식사를 하거나, 어떤 주제를 놓고 심오한 토론을 하거나, 중요한 일을 논의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만나면 웃을 일도 있고, 근사한 식탁은 아니지만 생명의 나눔이 있고,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한 잔의 막걸리도 있습니다. 함께 모여 무엇을 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공간에서의 만남이지만 본당에서 사제로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느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성체를 모시고 사람들을 방문하는 봉성체입니다.

미사 때 성체를 모시는 이들도 누구나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지니지만 봉성체 때에 성체를 영하는 교우들이 더욱 진지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잘 드러냅니다. 봉성체를 하는 교우들은 사제와 수도자 그리고 신자들이 자신의 집을 방문한 것에 대해 참으로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어떤 분들은 마치 본당을 자신의 집에 옮겨 놓은 것 같은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 수녀님이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집에 오셨으니 우리 집이 성당이네요.”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성체를 모시고 사제

와 수도자 그리고 평신도가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 하느님 백성의 모임인 교회이기에 틀린 말은 아니지요.

봉성체를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성당에 나와서 미사에 참례하고픈 강한 열망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성당에 나가야 하는데, 신부님과 수녀님이 누추한 저희 집을 방문하게 하는 수고를 끼쳐서 미안합니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당신을 방문한 사람들의 수고에 대한 고마운 마음과 성당에서 교우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픈 따뜻한 마음의 인사입니다.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제가 죽기 전에 미사 드리러 성당에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장례미사는 수십 년 다닌 우리 성당에서 드리라고 자식들에게 말해 놓았습니다.”라고 하십니다. 당신들이 기도하고 교우들과 친교를 나누던 성당에 나오고 싶은 그 열망은 방문한 이들을 숙연케 만듭니다.

성체를 영하고 그간의 안부를 나눌 때 교우들은 간식거리를 내어 놓는데, 어떤 분은 막걸리 한 통을 준비해 놓습니다. 본당신부가 막걸리를 좋아한다는 소릴 들었다며 한 잔 하시라고 합니다. 성체를 모시고 막걸리를 마신다는 것이 불경스럽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을 준비한 어르신들의 정성과 사랑을 생각하면 한 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마지막으로 방문하는 가정에선 항상 저녁 식사를 정성껏 준비해 주십니다. 자매님이 준비한 음식을 맛나게 먹는 모습을 안방에서 흐뭇한 모습으로 지켜보시는 형제님, 막걸리 한 잔 하라고 권하십니다. 이러다 보니 봉성체가 끝날 때면 저는 어쩔 수 없이 “떡보요 술꾼”(마태 11,19; 루카 7,34)의 제자가 되고 맙니다. 주님 보시기에 밋지는 않겠지요? **필문**



열두 사도 이야기

예루살렘의 첫 주교, (소)야고보 사도

열두 사도 가운데 두 분의 야고보 사도 중 차(次) 야고보 또는 작은(小) 야고보라 불리는 야고보 사도는 알패오의 아들로 주님의 사촌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서는 사도들의 명단이 언급될 때(마태 10,3; 마르 3,18; 루카 6,15; 사도 1,13) 등장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거두실 때(마르 15,40)에는 작은 야고보로, 또한 '주님의 형제' 야고보란 이름으로(마태 13,55; 마르 6,3; 갈라 1,19)도 몇 차례 등장합니다.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 사도가 기적적으로 빠져 나온 뒤(사도 12,17), 예루살렘에서 열린 사도회의(사도 15,13) 때에는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야고보 사도를 베드로, 요한 사도와 함께 교회의 기둥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갈라 2,9)

전통적으로 야고보 사도는 예루살렘의 첫 주교로 알려져 있으며 50년경에 열린 예루살렘 사도회의에도 참석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첫 서간인 <야고보의 편지>를 저술했는데 주로 선덕의 필요와 병자성사의 제정에 관해 역설하고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야고보 사도는 62년경 신앙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해 순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도 야고보를 크게 존경하며 그에게 '정의의 야고보'라는 이름까지 지어 줄 정도였으나,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리사이들이 결국 그분을 희생시키고 말았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내던져져

군중들에 의해 곤봉과 방망이에 맞아 순교하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미술에서 성인의 모습은 곤봉이나 방망이를 든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순교하실 당시 야고보 사도께서는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오니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하셨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로마에 열두 사도 대성전을 봉헌 할 때 제대 밑에 필립보 성인과 야고보 성인의 유해를 함께 모셨다는 전승에 따라 두 사도의 축일을 5월 3일에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성인께서는 마전장이들과 모자 제조업자들의 수호성인으로 공경 받고 있으며, 주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함'입니다.

동방교회와 학자들 사이에는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동일인이 아니라는 전통적인 주장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목숨을 다해 예수님을 증거하며 교회의 신앙을 굳건히 세워 놓으신 사도들의 터전 위에 지금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필문**



조르주 드 라 투르 '사도 (소)야고보'

## 교구 행사

### ■ 인류복음화성 차관 간담회



사진제공 : 가톨릭신문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와 장신호(요한 보스코) 보좌주교는 8월 19일(금) 오전 10시 30분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4층 대강당에서 열린 교황청 인류복음화성 차관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 ■ 천광성(바오로) 신부 은퇴미사



두류성당 주임 천광성(바오로) 신부의 은퇴미사가 8월 21일(일) 오전 10시 30분 두류성당에서 봉헌되었다.

## 생명 가장 큰 하느님의 선물



### 〈생명사랑운동 참여 방법〉

#### 1. 가정 성화 및 생명 수호 미사 참례

일시 및 장소 : 1월~11월(매월 마지막 월요일 11시), 성모당

특전 : 자비의 희년 전대사 부여

#### 2. 생명사랑 기부 참여

특별 기부(개인 및 단체) / 일반 기부(매월 5천원 이상 기부)

계좌번호 : 대구, 505-10-173562-7 / 국민, 612901-04-227935 /

농협, 301-0183-4632-01

문의 : 053-250-3011

## 사이비 신흥종교와 이단에 주의하십시오!

- 근래 들어 성모당과 각 본당에 **신천지** 신자들이 출몰하여 신자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신자여러분들께서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회에서 금하는 **나주 율리아** 관련 모임에 참여하거나, 관련 장소에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버자리는 언젠가

박성규 엘리시오



## 미 사 안 내

김천지역 학교복음화 미사	8월 31일(수) 19:00 성의여자고등학교 경당	성모기사회 신심미사	9월 3일(토) 10:00 프란치스코
		푸른군대 첫토요 신심미사	9월 3일(토) 11:00 성모당
9월 순교자 성월 신나무골 성지 미사	9월 1일(목) 11:00 신나무골 성지	발달장애아와 가족을 위한 월미사	9월 4일(일) 16:00 성토마스성당

### 성소 | 피정

#### 9월 예수고난회 성소 모임

일시: 9.3(토) 15:00~18:00

장소: 남대영기념관 4층(현충로역)

대상: 수도생활에 관심있는 미혼 형제  
문의: 이마리오 신부, (010)7507-6005

####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사제 성소 모임

일시: 9.4(일) 10:00, 서울 돈암동 본부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4번 출구)  
문의: (02)924-3048

#### 한국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성소자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  
에서 모임이 가능합니다.  
대상: 해외선교사제 지원자  
문의: 최정열 신부, (010)4055-5047

#### 첫토요일 성모신심 소피정

일자: 9.3(토) 10:00

내용: 영성특강(문봉한 신부)

찬양미사, 면담, 고해성사

은행: 버스셔틀(영남대 9:30 출발)

문의: 진량성당, 856-7676

####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일일 피정

기간: 9.27(화)~29(목) 10:00~17:00

장소: 바틀로교육센터(파동)

대상: 기도를 깊이 배우고 싶은 분,

자신과의 깊은 만남을 원하는 분  
문의: 김마리아 수녀, (010)2505-9545

#### 향심기도 피정

기간: 1차 10.10(월)~12(수)

2차 10.18(화)~20(목) 2박 3일

대상: 고요하게 기도하고 싶은 모든 분  
피정비: 12만원 / 문의: 평화계곡  
피정의집(소울스테이), (010)5332-7587

#### 제주 면형의집 피정

수사신부와 함께 걷는 전대사 제주성지  
순례, 올레길·오름, 트레킹, 평화·역사탐방  
기간: 9.25~28(추자성지) / 10.2~4  
10.8~10 / 10.13~15 / 10.17~19  
문의: 제주 면형의집, (02)773-1463

### 교육 | 모집 | 기타

#### 주님과 나\_하늘바라기 콘서트

일시: 9.3(토) 19:30~21:00

장소: 바오로딸서원(동성로)

주제: 3집 앨범\_주님과 나 발매 기념

문의: 성바오로딸수도회, 425-5185

#### 빛떼제기도

일시: 9.10(토) 18:00~21:00

장소: 예수성심시녀회 성심교육관

내용: 식사, 떼제, 친교

대상: 남녀 청년, 가족 누구나

신청: (010)9286-2247

#### 말씀으로 마음 치유(독서치료)

일자: 9월부터(매주 금) / 무료

시간: 19:00~21:00(10주간)

장소: 남산동 성바오로서원

대상: 남, 녀(30대~50대 신자)

문의: 성바오로수도회, 256-4592

#### 앞산밑 북카페 상영영화

첫째주: 추억의 이태리영화

둘째주: 영화로 만나는 예수님

셋째주, 넷째주: 과학다큐멘터리II

(칼 세이건\_코스모스)

일시: 매주(월) 14:00 / 문의: 622-1900

####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난타·고전무용, 동화구연 2급, 오카리나,  
수지침, 원어민영어, 필라테스, 발성법, 가  
곡성가, 하모니카성가, 미술심리상담 2급,  
시·수필, 왕초보관광영어, 제대사범 꽃꽂  
이, 클래식기타 / 신청: 254-6115

####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양업고 신입생 모집

아시아 최초로 좋은학교 인증을 받아  
전인 교육을 하는 하느님 사랑의 학교  
원서접수기간: 9.22(목)~10.4(화)

문의: (043)260-5076 / 5078

<http://yangeob.hs.kr>

**(주)한투어**  
성지순례전문

성모발원지(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이탈리아, 발칸 성지순례 모객 중

☎ 053-427-7090  
안 요한, 김 마리아막달레나  
<http://www.hantourcatholic.com>

**밝은귀보청기**

세계 1~5위 미국·덴마크·독일 보청기

서문점      동인점

김은연 세실리아      최준우 미카엘

☎(053)257-8588      ☎(053)421-8588

**밝은귀보청기** 검색

최추·관절 및 뇌·신경 클리닉

**백 신경외과 의원**

뇌졸중, 두통, 어지럼증, 손발저림, 진전, 오톤  
최골신경통, 목, 허리 디스크, 골다공증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오십견, 근·골격계 질환

원장 백운일(스페파노), 서영준(안드레아)

성당시장네거리 ☎ 053)628-4111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병원

**안심내과**

(30년 전통의 (구)이상계 내과)

내과 전문의 5인 진료 **765-3771**

심장·순환기, 소화기·내시경 전문  
공단검진, 암검진, 각종 종합검진

이상계(바오로), 김지영(대건안드레아) 외 3인  
들안길 네거리 ~ 황금성당 사이

**일본성지순례**

우쿠오카, 이라도, 나가사키 (3박 4일)

※ 출발일: 10월 26일, 11월 23일

**T. (053)253-3399**

(주)성지여행      조 협 레(유스티노)  
홍 미 최(안젤라)

**HS** **희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 LTD

대표이사    서 상 운(안젤로)  
                  송 정 애(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 522-5800      010-4508-4328  
                          010-2002-4328

**튼튼속내과**

건강검진센터, 내과진료  
위, 대장 내시경 전문

전문의/원장 박준모

TEL. 053)959-7585

대구시 동구 신암로 80 3층(신암2동 우재국 옆)

자기주도학습전문

**독서코칭 · 시험코칭**

**다중지능검사**

**UP학습코칭 · 논술**

윤 종 선 (가필로)

☎(053)752-0966      범어동 KBS앞

**대구UP학습코칭** 검색

†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8월 31일(수)은  
(故) 최영수(요한) 대주교  
선종 7주기입니다.  
9월 3일(토)은  
(故) 장태식(리노) 신부  
선종 4주기입니다.

**행사 | 모임**

**옥계성당 교육관·유치원 건립 기금마련을 위한 흥탁액(비오) 신부 사진개간전**

기간: 9.1(목)~30(금)  
장소: 예담 갤러리(샬트르수녀원)  
주제: 기억(La Memoria)  
문의: 옥계성당, (010)8772-8731

**한티순교성지 매일미사**

시간: 9월부터 매일 11:00  
장소: 순례자성당(점심 예약가능)  
문의: 한티피정의집, (054)975-5151

**대구평화방송 개국 20주년 기념미사**

일시: 9.9(금) 17:00, 계산성당  
주례: 조환길 대주교, 사제단  
대상: 초청인사, 대구평화방송 후원

회원, 일반신자 누구나 참석 가능  
문의: 대구평화방송 총무팀, 251-2610

**성령봉사회 2박 3일 성령 세미나**

기간: 9.9(금) 13:30~11(일) 17:00  
장소: 대구성령봉사회관(고령 월막)  
신청: (054)954-0951 / (010)4461-4419  
일일피정: 9.10(토) 14:00~17:00  
장소: 대구성령봉사회 별관(평리동)

**제30차 교구 울뜨레야**

일시: 10.15(토) 9:00, 성김대건 기념관  
주제: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문의: 254-4671

**교육 | 모집**

**소공동체 체험수기 공모**

기간: 7.29(금)~9.30(금)  
내용: 소공동체 활동에서 체험했던 내용  
제출: 교구 사무국(samok@dgca.or.kr)  
문의: 250-3056 / 채택된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계산 열린 특강**

일시: 9.3(토) 17:00, 계산성당  
주제: 대한민국과 국가안보

강사: 이철우 의원  
문의: 계산성당, 254-2300

**대구ME주말 가정, 가장 가까운 교회**

345차 ME주말: 10.21(금) 19:00~23(일)  
장소: 한티피정의집 / 문의: 983-0521  
풍요로운 혼인생활을 위한 부부프로그램  
부부는 작은 교회입니다.

**순교자성월 영성 특강**

일시: 9.3(토) 16:00, 관덕정순교기념관  
강사: 양창우(요셉) 신부  
문의: 관덕정순교기념관, 254-0151

**신학 및 성경과정 수강생 모집**

교회론, 철학, 신구약성경, 성경입문, 음악, 전례봉사자교육, 새벽음화와 윤리적 과제, 묵시문학의 이해, 장자 내편, 영화로 보는 현대이상심리 / 개강: 8.30(화)  
다음카페: 평신도신학교육원, 660-5105

**채용 | 안내**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국내입양전문) 입양상담 및 미혼모상담  
문의: (02)764-4741~3  
<http://www.holyfcac.or.kr>

**대구평화방송(FM 93.1) 9월 라디오 프로그램 안내**

신부님과 신자들이 직접 출현해 들려주는 우리본당 이야기 '본당순례: 우리본당은요'(홈페이지 다시듣기 가능)

방송시간: 매주 토 오후 6시 5분~7시 (주파수: 포항 96.9MHz, 김천 100.5MHz, 안동 100.7MHz)

9월 3일 가실본당

9월 10일 기계본당

9월 17일 월배본당

9월 24일 사동본당

**장윤제 연합치과**  
뉴욕대학교 임플란트과 임상교수  
원장 장윤제(바르나바)  
대구은행 본점 맞은 편  
T. (053)752-9797

**건어를 호성상회**  
(서문시장 내 주차빌딩 맞은 편)  
김, 멸치, 산모용 미역, 안주, 반찬류  
배호성(헨리고), 박필교(울리나나)  
☎ (053)255-9077  
010-9447-5193

**(주)김스여행**  
스페인(산티아고) 5일도보/루르드 14일  
• 출발일: 10월17일 ~ 10월30일  
• 지도신부님 동행합니다.  
☎ 1544-4655  
대표이사 김천훈(아우구스티노)  
김경숙(글로리아)

**미소나리** 출장뷔페  
에식뷔페, 기업체행사  
각종 야외행사, 성당행사, 장례뷔페  
대포 양 애 향(마리아)  
☎ 사회적기업 (주)서구월푸드  
문의전화 053)555-4843  
<http://www.미소나리.kr>

백내장수술, 근시교정수술  
**대구안과**  
DAEGU EYE CLINIC  
의학박사 전문의 이호성(아오스딩)  
의학박사 전문의 조영수(다미아노)  
☎ (053)651-2233  
남구 월배로 468 (구)달성군청자리

**박의현 구심내과** 의원  
**서정의 피부과**  
Dermatologist Dr. Suh  
피부질환, 레이저, 스킨케어, 보톡스  
심장병,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초음파  
지하철2호선 경대병원역 3번출구  
☎ 256-6700 서정희(카타리나)  
☎ 252-1785 박의현(안드레아)

**이상도 신경과**  
신경과 / 내과 / 정신건강의학과  
이상도 (프란치스코)  
대한 신경과 학회장 역임  
대한 뇌전증 학회장 역임  
대구 경북치매 연구회 회장  
계명대학교 명예교수  
현대백화점 뒤  
☎ 053)252-0418

**백두정형외과**  
www.baekduos.com  
정형외과 전문의 배억두 아오스딩  
배상근 베드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임형준  
동인 치안센터 건너편 T. 425-5919  
어게 무료 발목 **관절경수술**  
NAVER 백두정형외과 검색